

번호 II-3

제 목	국문	일부 60-64세 농촌노인에서 음주양상과 혈압과의 관련성			
	영문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rinking Patterns and Blood Pressure in Some Rural Elderly Aged 60-64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무식, 이충원 ¹ , 이미영 ¹ , 김은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영문	Moo Sik Lee, Choong Won Lee ¹ , Mi Young Lee ¹ , Eun Young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¹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 년 10월				

1. 연구 목적

평균 알콜 소비량의 증가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은 대체로 명확하여 졌으나 음주 형태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Russell et al, 1991). 또한 음주의 영향이 민감한 노인인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의 고혈압 유병율에 관한 역학적 연구와 혈중 지질성분과 관계된 연구, 지역보건사업관련 연구, 치료순응에 관한 것들 등 다양하고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음주의 형태와 혈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노인인구에서의 음주양상과 혈압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질환의 선행요인이 되는 음주의 건강유해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콜소비와 혈압과의 관련성에서 음주의 행태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음주행태가 혈압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혈압과 관련된 혼란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음주빈도 등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행태를 포함하여 음주행태의 상호작용과 독립적인 영향을 평가,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96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와 협동을 수행한 달성군 노인추적 조사(Dalsung Elderly Follow-up Study)의 일부 결과이다. 본 연구는 달성군내 거주하는 만 60-64세 노인 1,329명을 대상으로 농촌 사회의 노인에서의 음주와 고혈압과의 관련성을 조사 연구한 것이다. 달성군내 9개면에 소재하는 보건지소 근처의 리를 단위로 하여 노인 1,329명중 면담에 협조가능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면담조사원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19명의 보건진료원 및 통합보건요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일대일 면담형식으로 1996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대상자는 그 기관에서 면담 및 검사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보건지소를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지의 구성항목으로 음주관련 항목은 음주 여부, 아침 식사전 음주 여부, 월평균 음주 횟수, 술의 종류, 1회 음주량, 음주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음주와 혈압사이의 관련성에서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연령, 성, 교육수준, 월평균 용돈, 직업 등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와 계측학적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그리고 허리 및 둔부 둘레를 측정하였으며 흡연은 일일 흡연하는 담배개피수로 하였다. 혈압의 측정은 5분 이상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후 누운 상태에서 휴대용 자동 혈압계(SE-2000, 세인전자, Korea)로 1회 측정하였다. 이 혈압계의 정밀도는 혈압 \pm 2mmHg 였다.

3. 연구 결과

(1) 음주행태에 따른 일평균 음주량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아침식사전 음주자 즉, 공복시 해장술 유무와 월 음주빈도, 일회음주량의 분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선호하는 술의 종류, 음주기간 간에 따른 일평균 음주량 분포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2) 회귀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수축기 혈압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유의한 변수로 선택된 것은 연령, 교육수준 및 순환기계질환을 의미하는 과거병력 등이었으며, 확장기 혈압에서는 교육수준, 체질량지수, 과거병력 등이었다. 모형 2에서 수축기 혈압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과거병력이 유의한 기여변수로 선택되었고, 확장기 혈압에서는 체질량지수와 과거병력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어 음주 관련행태 변수는 선택되지 않았다.

(3) 음주 행태에 따른 수축기 혈압 및 다른 공변수를 통제한 조정된 수축기 혈압을 비교하면 공변수 조정 전에서는 음주유무, 아침식사전 음주유무, 선호하는 음주의 종류,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공변수 조정후에는 음주유무, 아침식사전 음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음주 행태에 따른 공변수 조정전후 확장기 혈압을 살펴보면 조정전에서는 선호하는 음주 종류에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p<0.05$), 공변수를 조정한 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고찰

평균 알콜 섭취량과 혈압상승과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에 대한 음주양상의 영향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전의 대다수 연구에서는 음주의 양과 빈도측정을 평균 음주소비량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음주의 여러 가지 행태에 따른 혈압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주일동안 매일 두 잔씩 음주하는 사람과 주말에 14잔을 먹는 사람의 경우, 이들 두 행태와 관련된 혈압의 변화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침 공복시 음주유무, 일평균 음주량, 월 음주빈도, 1회 음주량, 선호하는 음주종류, 음주기간 등 음주 소비행태 변수가 혈압에 미치는 상호 역동적인 및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음주행태에 따른 일일 평균 음주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회귀분석 결과, 혈압에 미치는 기여변수로서 일일평균 음주량 및 음주 관련행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행태가 수축기 혈압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을 때 음주 유무와 아침 공복시 음주는 수축기 혈압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타 다른 음주 관련 행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확장기 혈압에서는 조사된 모든 음주관련 행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금까지 연구된 음주와 고혈압의 보전 및 임상적 관련성과 반대의 결과를 보임으로 음주행태가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더욱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소견은 재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음주로 인한 혈압의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음주행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을 도입한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